

登録番號 第二一一〇九號  
一九六四年八月號·通卷一三號

# 자유

6 8 19

1216

## 重要目次

特輯

이 民族의 宿命을 말한다

「카스트로」 누이동생은 이렇게 脫出했다

소련共產黨의 良民虐殺史  
第一新義州學生事件의 全貌



自由文化社

8

1964

民族의 宿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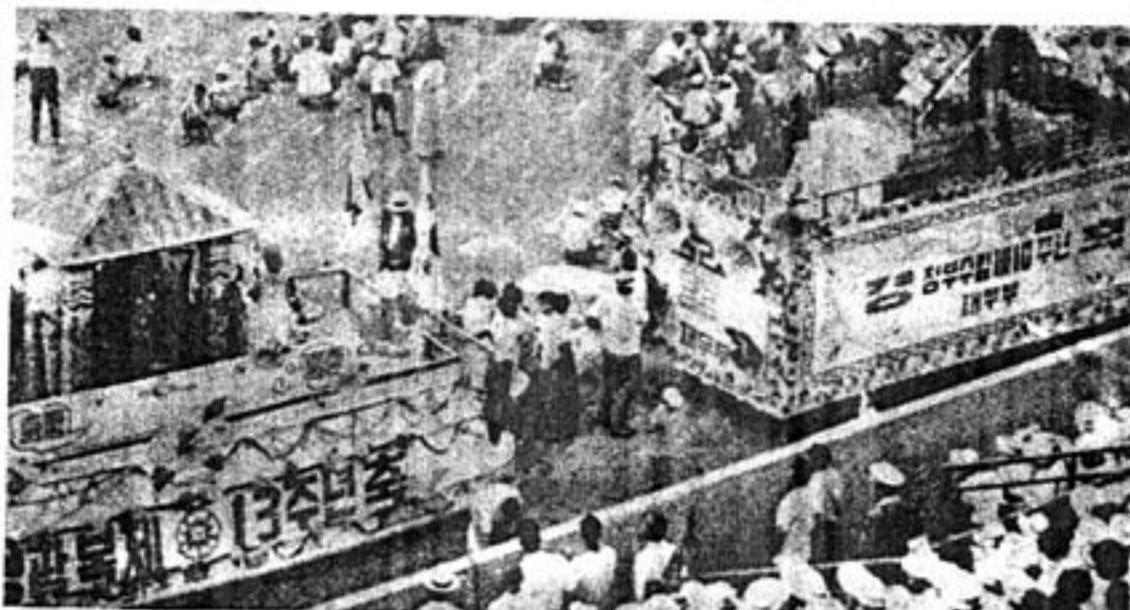
왜 日帝의 植民地가 됐나?	洪 以 靜...20
國土兩斷의 歷史的 考察	柳 洪 烈...22
韓國統一에 좀더 積極性을	曹 正 煥...24
拉北人士들은 돌아올 것인가	申範植...30

내가 맞은 8·15

<海外에서> 光復軍을 中心으로	張 虎 崑...32
<職場에서> 受侮의 “學兵”이란 宿命 앞에서	申 相 楚...34
拉北家族에게 보내는 便紙——	
그 호탕한 웃음소리 듣고 싶어요	오 부 임...29
光復 19돐·紀念獻詩——	
祖國이여 荣光 있으라	孔 仲 仁...36
共產傀儡의 洗腦教育	韓 輽 德...42
擔當事務에 專門知識	이 수 우...60
池田三選과 韓日會談展望	金 芝 雲...38
美國의 對越南政策 <東南亞의 近況>	李 志 雄...62
顯亂의 再燃한 “종교”	朴 京 穆...82
	金 楠 起...85
美 民權法 通過의 周邊	文 信 珠...66
金門島의 P. R 戰爭	金 尚 錦...70
붉은 規律에 反旗를 든 志賀	張 夕 鄭...88
	李 釜...64

拉北人  
이렇게 殺害됐다!

■ 平壤監獄에서의 惡殺	趙 漢...14
■ 步行不能者의 私刑	
■ 江界로 가는 길	
■ 政治保衛部의 銃殺權	
■ 拉北人士들의 脫出計劃	
■ “트럭” 위에서의 피의 抗拒	
■ 教徒들의 慘酷한 죽음	
■ 清津監獄에서의 蜂起	
“악사이 사이”의 共產 “개리라”掃蕩戰	보이드·T·페소우...77
소련社會의 家族概念의 變遷	李 鐘 譯...93
	羅 亮 烈...93



## 同族受難記 (1)

# 拉北人士들은 이렇게 殺害됐다

人間의 탈을 쓴 共產黨 놈들은 오  
늘도 同族 殺害에 餘念이 없다. 拉  
北人士는 署 한名도 없다는 어거지  
뒤에는, 果然 또 무슨 極에 達한 虐  
殺史가 숨어 있는가?

趙澈  
<前 北朝平壤市產業局長>



1960年 10月 15日 밤, 북으로 복으로 도주하는 인민군과 중공군의 제간병들이 평양시가 주변에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 그위증 간부들은 멀리 강제로, 혹은 만주 방면으로 도망치고 만았다.

이 당시, 시·인장은 한도문에서 장군 소리 같은 무정(武亭)이란 자를, 평양의 당위 사당관으로 임명하였고, 도주하는 데 나왔다. 일반 시민들은 폭력을 피해 다니면서 박을 것도 일을 것도 없이, 모두 아우성을 치면서, 아파도 치료도 끊겨 다니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평양 근처에는 폭음소리와 차소리로 요란하였으며, 가끔 조명한 발사가 제속되어, 도주하던 피의군들은 도로에서 죽은 듯이 엎드려 턱피하곤 하였다.

16일 밤, 먼 곳에서부터 "유엔"군의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실색한 피의군들은 최후 발악을 다하여 평양을 지키려 하였으나, 노도와 같이 물이 달리는 "유엔"군의 기세 앞에 어찌할 도리도 없었다. 방위사령관인 무정(武亭)은 먼저

도망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모든 처치 문제를 위임하였다. 특히 갑속에 잡금시키고 있는 해국인사와 남자인사 처치 문제에 대하여 진밀한 조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에 평양 교파소(갑속)에는 수천 명의 해국인사 및 남자인사들이 조조한 나날을 보내면서, 피눈물 나는 원한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13일부터 매일 밤, 수십 명씩 끌어다 총살을 시작하였던 해이었다. 수백 명의 피의 경비원 및 간수들은 쇠고미, 쇠사슬, 막줄을 모조리 쳐내어, 끌어내고서는 갑총리 산비 탈로 묻고 갔었다. 여기는 어린 아이·부인·노인 등 해국자의 가족들도 수백 수천을 살 수 있었다. 남자인사들은 10일 전후부터 매일 북으로 끌어가면서 하였으나, 병들어 도보 부농자는 피의군을

시켜 부축하였다. 마지막의 단안을 내 책에 명의 남살한 연후에 있다. 당시, 신을 하던, 桂株(이광수)의 처명인사들도 을 풀고 감방·유엔·군의 속에 남지 않아, 미는 밤 하늘 학살 대상으로 편수(이광수)에는 기이지도 못하면서, 학살 대상 였다. 이것을 은 총대를 들고나, 괴짜 장교하고, 白寢隊(이었다. 경선·명에게 호통을 들을 때 묶어 전 신경을 고 고함을 질렀던 자라는 자가 들고 있던 명사의 한 사람이 절에 있던 장교 수근 하더니, 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것은 도주할 수 있을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끝 괴으면서, 최후 대열에 끼이게 이 당시 白색 우 학살을 보면 열에 끌어올렸으나, 식조차 없거나, 할 수 없는 수처럼 "트럭"에 끌어면서, 갑종리 총살을 당하였다. 나중에 안 일장남인 崔博士(글에 따라 평양 당한 崔奎東氏) 할인 경복 성주지 지냈던 것이 될 수록 남자인사에는 하는 거다. 정비병들은 남자인사를 다하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시켜 부축하여, 北으로 들어가온 하였다. 마지막 날인 16일은 최후의 단안을 내리고, 병들어 들어온 백여 명의 남치인사들을 모조리 학살한 연후에, 도주할 것을 결정하였다. 남치인사 중에는 노병으로 선을 하면, 崔奎東(최규동)씨, 李光洙(이광수)씨, 朴容來(박용래)씨 등 저명인사들도 수십여 명이나 정신을 잃고 갑방에서 쓰러지고 있었다. “유엔”군의 진군은 물과 몇십 리밖에 남지 않아, 박격도 소리는 비내리는 밤 하늘을 진동하였다. 학살 대상으로 들어 있던 白寬洙(백관수)씨는 기적이라 할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던 몸을 갑자기 움직이며, 학살 대열에서 뛰쳐날려고 하였다. 이것을 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충명률을 끌고 마구 칼질하 하였으나, 괴뢰 장교 한 명이 이를 제지하고, 白寬洙씨를 그 대열에서 끌어냈다. 정신을 가다듬고, 괴뢰 장병에게 호통을 쳤다. 이 병든 사람들을 끌어어서 죽이려 하는가?

전 신경을 쏟아가면서, 몇 번이고 고함을 질렀다. 마침, 경비 총색 일자라는 자가 이 광경을 보더니, 들고 있던 명부에서, 저명 남치인사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전에 있던 장교들과 무어라고 수군수군 하며, 다 죽어가는 학살 대열 속에서 들어내어, 다른 곳으로 올겼다. 이것은 白寬洙씨를 데리고 도주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白씨는 이곳에서, 꿈 괴뢰병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최후에 출발한 남치인사 대열에 끼이게 하였다.

이 당시 白씨 외의 몇 사람들은, 저우 학살을 모면하고, 남치인사 대열에 옮겨졌으나, 병들어, 거의 의식조차 없거나, 혹은 도저히 보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인사들은, 칭탁처럼 “트럭”에 실리어, 비명을 울리면서, 강홍리 산비탈에서 무참히 총살을 당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崔奎東씨의 장남인 崔博士(醫學博士)가 “유엔”군에 따라 평양에 도착 즉시 총살당한 崔奎東氏의 시체를 찾아서 고향인 경북 성주(星州)에서 장사까지 지냈던 것이다.

칠수록 남치인사를 강제에까지 연행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괴뢰 경비병들은 남치인사 수송에 반전을 당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들어간 남치인사들은

은 험악한 준령을 넘으면서, 밤으로 쓰러져 죽은 인사들도 무지기 수 있었다. 병들어 잘 걸지 못하는 인사들을 괴뢰사병들이 끌어 업고 하루에 수십 명의 선동어리를 넘으면서, 야간에 이르러 깊은 산중의 계곡에 그냥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비밀히 노인들의 목을 잘라 숨이 없애고는 어린가로 도망쳐 버리는 괴뢰 사병들이 허다하였다.

이러한 저속 행군을 수십 일이나 겪고, 저우 평안 북도 강제까지 도착하였을 때는, 수십 명의 남치인사들이 대열에서 떨어져, 병사하거나, 혹은 경비병들에게 학살당한 것을 알아채린 白承日(백승일)이 문노를 참지 못하여, 경비 책임자에게 항의하자, 당장하는 대도를 참추지 못하더니, 며칠 후에 몇몇 남치인사를 어리운지 데리고 갔다. 끌려간 곳은 정치보위부였다. 이곳 약수동(藥水洞)이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보위부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남치인사들과, 소위 반동분자를 설사하여, 간혹한 고문으로서 그 정체를 밝히는 대형인이 되고 있었다.

반동분자의 낙인이 찍힌 저방 사람과, 끌려온 인사들을 무대기로 수십 명씩 들어서, 질단적으로 수용시켜 가면서, 그 괴로움을 피하고 있었다. 이곳으로 넘어온 수명의 남치인사들도 매일같이 가혹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아야 했다. 이곳에서는 그 당시, 총살 집행권까지 있어서, 재판이란 생각할 수도 없고, 비위에 얻지 않은 사람은 <학질 반동>이란 낙인을 찍고, 산 모onga에서 매일같이 총살이 집행되었다.

수명의 남치인사를 총 白承日만은 배놓고, 며칠 후에는 행방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中和감옥에서 질단적으로 끌려온 남치인사들은 거의 관계, 사법계 출신들이 많고, 젊은 청년 장교들과 반공 청년단 관계 인사들이 많았었다.

中和에서 부랴부랴 수차에 걸쳐 이곳까지 들어온 남치인사 중에는 金宇植을 비롯한 백여 명의 젊은 인사들이, 뒷기 없이 이곳 임시 수용소에 도착하였다. 그때가 바로 1950년 11월 초였다. 北네 방에는 편히 한마음과 서리가 내리 차거운 바람이 온몸을 스치기 시작하였다.

이 백여 명은, 그들이 반동으로 규정하여, 그 배후를 조사하기 위

하여 이곳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특별 풍은 듯한 정치보위부 간부들이 이를 남치인사들의 과거 경력을 가려내기에 분탕하였다. 특히 정관파 국군을 가려내기 위하여, 임시 수용소에 많은 정보원을 남치인사로 가장시켜 함께 수용시키는 하였다. 정보원들은 마지막 남한에서 끌려온 것으로 가장하고, 별별 눈물 어린 통장을 표시하는가 하면, 이곳 수용소를 탈출하자는 것과 같은 원동력을 보여주고, 마치 공포의 날 통장을 하는 척하였고, 이곳 수용소에서 정체(正體)를 감추고 묵묵히 앉아 있으면 젊은 경찰관 한 사람의, 장일한 정보원에게 이곳을 탈출할 것을 상의하였다. 끌려온 신원을 감추었던 金宇植이 한 경찰관을 짐작한 정보원을 남치인사인 줄 믿고, 서로 상봉하였다. 며칠 후에는 더 많은 인사들을 포함하고, 이곳 탈출을 기도하였다. 그 당시, 이곳에서 3급에 괴롭힐 만한 안주(安州)근처에는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산으로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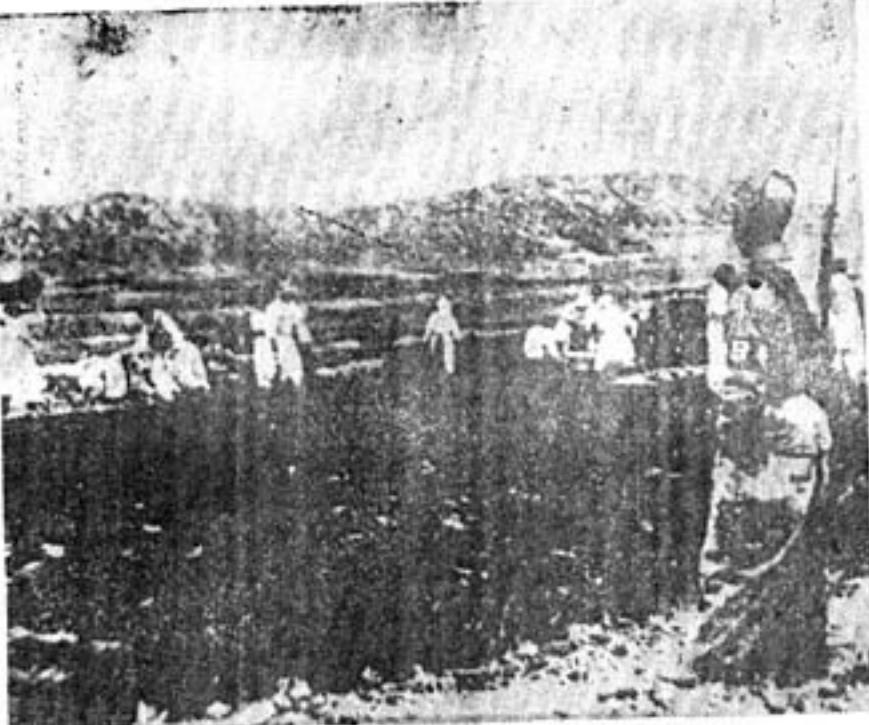
미칠 후, 십여 명의 인사들이 비밀리에 탈출에 합의하고, 이곳 수용소의 경비원을 타살하고 야간 도주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보원은 가장 열렬한 동지처럼 가장하고, 매일 비밀히 정치보위부에 그 을모 사건을 보고하였다.

탈출하려는 세력에 정치보위부에서는 수많은 무장 경비원을 비밀히 배치하고, 탈출 시간을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자, 남치 인사 10여명은 손에 물을 들고 하나 하나 수용소의 달을 넘으며 하였다. 이제 보위부 간부들은 공포를 끼면서, 수용소 달을 넘으려는 10여명의 남치인사를 불잡아 미리 준비했던 로승으로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다음 날, 타처로 옮겨놓고, 불잡힌 인사들에 대한 죄도 심문과 악랄한 고문이 계속되었다.

정치보위부원은, 金宇植에게, 너희들은 대한 민국에서, 넘겨보낸 간첩이지? 너희 신분은 다 알고 있으니, 말하지 않아도 좋다! 하면서 매일 잡을 제우지 않고, 남치인사들의 신분을 말하라고 고문을 계속하였다.

끝내 2·3명의 신원을 내사하고 이를 전철이라 규정하였다.

金宇植이는 최후의 죽음을 각오



<傀儡兵의 監視 밑에 労動을 하는 囚人 아닌 囚人>

하고, 고문하는 정치보위부에게 <악독 같은 징승들아, 사람의 말을 쓴 징승놈들> 하면서, 고래 고래 고함을 질렀면서 쓰러졌다. 노기 분분한 보위부원들은 구둣발로 마구 차면서, 질질 끌어서 내동댕이쳤다.

이 일이 있은 후, 3명의 납치인사들은 金宇植씨를 비롯하여 인민재판에 물었다.

미남민들로 끌끌는 이곳 강제의 한 구식에서, <유엔>군의 폭력을 피하면서, 소위 인민재판을 열었다. 근처의 피피 이탕(匪諜)을 통하여, 강제로 들어 도운 무식 대중들은,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알고 인산인해를 이루웠다. 이곳에서 3명에 대한 사형이 선고되자, 金宇植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군중들에게 환하여, 크게 절절 웃었다. 이것을 본 경비원은 충대로 머리를 두드리며 입을 막았다. 몇 분 후에 첫 산에서 충살령이 집행되자, 군중들은 상을 펴쓰리며 머리를 들었다.

나머지 십여 명도, 소위 인민재판은 면했으나, 이 수용소에서 별도로 올려져, 어디론가 데려 갔었다. 나중에 알 일이지만, 이 중에는 許南洙라는 납치인사가, 잔신히 빠져서 일반 납치인사들이 기거하는 蒲浦里에 옮겨졌다. 許南洙씨는 본래 대한민국 국회 충무과장으로

있다가 납치되어 찾았다. 그중 죄과가 경하다하여, 일반 정치인들이 수용된 곳으로 옮겨가서,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졌었다.

나머지 1백여 명의 절은 납치인사들은 십여 명이 행방조차 모르게 반꽃으로 끌려가고, 또 3명이 충살령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미칠을 탄식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었다.

이들 중 거의 전부가 열병과, 질병에 걸려 신을하면서도, 같은 동지들의 충살령 소식을 듣고 더욱 충격을 일으켜, 다만 죽음을 회망하였다. 문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명 정치인들이 이 수용되어 있는 곳은, 어느 정도 후대도 하고, 식사도 해 나온 편이 있다. 정치인 중 趙彥九, 金整植은 천식과 노병으로 기거를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는데, 납치인사들의 충살령의 소문을 듣자, <같은 종로거리 무슨 원한이 있느냐? 참으로 우리의 비극은 어디 비할 바 없다> 하며, 통탄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경비 책임자들은 상을 펴쓰리며 웃마방하게 여기면서, 노려보는 바였다. 유팔리 趙彥九씨는 짜증까맣한 목소리로 경비원들의 푸대접을 꾸짖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저명 납치인사들에 대한

대우는 앞으로의 이용(利用)을 위하여, 가능한 정도의 대접과 평의를 보아 주었었다. 다만, 소위 <반봉>으로 끌려온 납치인사에 대한 심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졌으며, 충살령을 시킨 이후에도 그들의 신문을 밟히 보려고 무한히 애를 쓰고 있었다.

이곳 저곳에서 선호단이 오르기만 하면, 경비원들은 <저것 짜파라! 간첩들이 이 지방에 우글거리면서, 선호단을 비밀히 올리고 <유엔>군에게 폭격을 조종하고 있소!>하면서, 그 파풀이를 하곤 하였다.

1950년 12월도 저들려는 차 거운 밤에, 갑자기 소위 <반봉 납치인사>들을 <트럭>에 배워, 만포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이 중에는 대답하고도 충감한 崔洙輪이란 국군 출신의 청년 단 간부가 있었다.

<트럭>에 짐짝같이 실어, 고개도 들지 못하게 흐름을 치는 경비병의 충자루를 메앗아, 마구 갈기기 시작하였다. 같은 납치인사들도 이에 호응하여, 고함을 지르며 함께하였다. 수명의 경비원이 바랄 충을 연발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삽시간에 차가 멎고, <트럭> 위에는 피바다가 되어 신음소리가 요란하게 퍼져왔다. 차더한 북풍이 불어오는 두만강 강바람은, 살을 예밀듯이 불어온다. 경비병은 <움직이면 죽다!>하고 살기 등등하게 충대를 저누고 있는가 하면, 다른 경비원은 걸음을 멎고 중로(空籠)난을 계속 돌아했다. 몇 시간이고, 이곳에서 멈추어 있던 <트럭>은 날이 밝기 시작하자,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만포 근처 군우기의 나쓰리가 가는 농가에 도착하자, 이곳에 자리잡고 있던 일시 경비보위부원들이 수십 명 기다리고 있었다.

<트럭> 안에서 쓰러져 죽은 3~4명의 인사들은 전신에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고 있었고, 나머지 몇 명은 부상을 당한 채 피바다를 이룬 <트럭>에 쓰러져 숨져가고 있었다. 부상을 당하지 않은 납치인사들도 모두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깊숙처럼 침침이 쌓여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트럭\*위에는 한체, 두 눈으, 피에 물들이 있. 보위부원들은 물 끌어내어 가당한 인사들은 수용하였다.

산비(不韌)한 시커, 충금가로. 간이 지난 후, 동네 농민들을 산비탈에 합장을 상당한 수많은 계곡하였다. 미주자 신음소리는 미쳐 갔으며, 늦어서 서성거리며, 특히 그 등정만. 이곳에서 수십들이 1개월간을 보위부의 징요한 몇몇 인사인 李이곳에서 벗어나, 이 수용원 別金리에 갔고, 나머지 끌려서 平北 高山전되어 갔다.

이곳 高山頭에 창소, 제관소가 이곳에서 푸대기고 있었다.

형식적이나마 매일 같이 제관을 있는 潤原의 육군은 하였다.

수십의 명의 국 납치인사들도 이 판을 받기 위하여, 예제관을 기타미 수십에 명이 제관을 및 간첩이란 어선고 받고, 10년 받았다. 이월대로 중에는 불린(不屈)도 있었다.

제관을 받은 이 산하여 각지의 일 가서, 중노동에 안피었다.

청진 교화소, 아 蕃獄) 해산전 수용 시 수천 명의 만금 벌면서 중노동에 다.

마우기 납치인사 등 인사라고 제관과

“트럭”위에는 그야말로 처참을 꼭 할 때,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피에 물들어 있었다.

보위부원들은 쓰러져 죽은 인사를 끌어내리며 가마니로 달고, 무상 당한 인사들은 농가의 구석 방에 수용하였다.

불비(不能)한 퇴로 일꾼들을 통신 시켜, 충금가로도 하였으나, 몇 시간이 지난 후, 모두 숨쳐갔었다. 농민들은 농민들을 통한하여, 균처의 산비탈에 학장을 하고, 나머지 부상 당한 수많은 인사들은 가묘를 제축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고통과 신음소리는 균방의 농가를 베아 미쳐 갔으며, 농민들은 이곳저곳에서 서성거리며, 놀란 눈동자로 뚝뚝히 그 통경만 보고 있었다.

이곳에서 수십여 명의 납치인사들이 1개월간을 가로한 끝에, 정치보위부의 친요한 실사를 받은 후, 몇몇 인사인 李明柱, 李萬根 등은 이곳에서 벗어나, 일반 납치인사들이 수용된 別金里 수용소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인사들은 또 다시 끌려서 平北 高山鎮이란 곳으로 이전되어 갔다.

이곳 高山鎮에는 그당시 괴뢰 청찰소, 재판소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무더기 재판을 강요 당하고 있었다.

형식적이나마 괴뢰군 장병들도 매일 같이 재판을 받고는, 균처에 있는 潤原의 육군 감옥으로 실어가곤 하였다.

수십여 명의 국군 및 경찰 출신의 납치인사들도 이곳에서 형식적 재판을 받기 위하여, 냉엄한 감시하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수십여 명이 재판에 피부되면, 반동 및 간첩이란 어마어마한 괴명을 선고 받고, 10년 이상의 형을 언도 받았다. 이월대로 여전 납치인사들을 중에는 불현(不道) 습진 만한 중한자도 있었다.

재판을 받은 이들은, 몇 명씩 분산하여 각지의 임시 감옥으로 옮겨 가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청진 교화소, 아오지 탄광(阿吾地炭礦) 해산진 수용소 등에는 그 당시 수천 명의 반공인사들이 기아에 떨면서 중노동에 쓰러져가고 있었다.

더우기 납치인사를 중, 소위 반동 인사라고 재판까지 받은 이 사람

들도, 여기 감옥에 수용되어 괴수(鬼囚)층에도 가혹한 노동인 탄광의 저하작업에 종사해 하였다.

이기네이 대역, 야사자와 함께 주로 수어네이시는 수수 무기기 있었던가, 당시 이곳을 관할한 목사인 崔顯(최춘)씨도 단물분자로 블리, 수백여 명의 괴수인과, 치안대에 가담한 반공투사들이 죽음의 나날을 보내면서, 이웃을 달啄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납치인사인 朴正默, 李在漢 등 수십여 명은 탄광 감속에서 세상을 한탄하며 죽어갔으며, 나머지 인사들도 거의 쓰러져 죽었다 한다. 특히 이 延北의 아오지 탄광(阿吾地炭礦)에서는 1952년 말경에는 수백여 명의 반공인사들이 무더기로 아사하였으며, 혹은 반항하다가 쓰러져갔다 한다.

그리고, 남한에서 끌려간 종교인들도 이에 못지 않게 괴수 대우를 받았다.

수십여 명의 종교인들은 滿浦의 及互里(양호리) 균방의 헐어빠진 농가에 갑금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인 중 거물급만은 끝까지 이용하려고 멀리 수단을 다 써왔다. 그러나, 檢奉廳만이 매수 당하여 이곳 수용소를 퇴난 후, 수십여 명은, 청탁적으로 모친 연명에서 피를 토하고 매일 같이 쓰러져 가고 있었다. 청탁하고 대답한 宋昌根 목사는 그중에서도 열명만은 걸리지 않고, 다른 농가에서 갑금 당하고 있었다. 괴뢰 알잡이 목사인 金昌俊이 갑금 당한 宋목사를 찾아와서 용혹의 손을 벙쳤다. 참다 못해 宋목사는 <반역자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대답하게 대구질하였다. 그곳에서 보고 있던 경비원과 정치보위부원은 며칠이고 물도 주지 않고, 식사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끝끝내 단식에 이겨낸 宋목사는 죽음으로써 대항하였다. 그러나, 보위부 고위층은 필수록 살려가면서 이용하려고 하였다.

“발진티부스”的 일정으로 李在明 목사를 수명이 숨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李목사는 물면서 며칠이고 기도에 물들하였으나, 경비원들은 <미치광이 애수장이>라고 호통을 치며 죽을 꾀부었다.

약 두 달이나 이곳 수용소에서 병들어 누워 있던 납치인사들은(550人), 평안 북도에 몇몇 목사를 강제 노동으로 보내고, 나머지 이용

가치 있는 목사들을 또다시 평양으로 끌어라고 했었다. 평양 관악과 평안 서비에서 1년마다 절과 갖가지 그물은 목사들이 목사 두장을 그려가 암았었다.

괴뢰장면에서도 설국은 이를에 대하여, 韓亡(한亡)시키려는 성산이었으나, 그 당시 대한민국(大韓國) 정부 선전주체를 고려하고, 창정적이나마, 일제 각 군도는 적장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이 중에서도 평안북도의 범복장(板木場)에 보낸 蔡探覽 목사와 陽福사는 비躬에서 통장을 받아가면서 드물게 끝나게 신임을 얻었으나, 괴뢰의 비위에 거슬리, 이곳 벌목장에도 그다지 오래는 있지 못하였다.

1954년 초봄에 이를 목사를 잡자기 물려서, 마치 휴양소에 보내는 척하며 이곳에서 이동하였다. 그러나, 간 곳은 휴양소가 아니라, 북한에서도 가장 수용력이 많은 청진감옥으로 보내어졌다.

이 당시, 이곳 감옥에서는 북한 출신 종교인과, 소위 반동으로 블리어 우마처럼 혹사 당하고 있는 수천의 반공투사들이 죽음의 세월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매일 같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곳 간수들은 그나마 인정이 없는 악진 공선당원의 할값이 끝에 모아왔기 때문에, 한 가닥의 자유나 한 토막의 인정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혹사 당하다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대장하는 것이 예사이며, 그날의 과중한 계획이 미달되면, 멀쩡 저별을 감행하는 하였다. 주로, 탄광 노동파, 농사 일을 시키는 이곳 감옥에서는 노인들은 주로 농사 일을 시켰으나, 세만이 이상하게 날은, 그들은 매일 모진 중노동파, 경비원들의 체격질에 일손조차 전디어 나기가 어렵웠다. 절실히 보면, <반동 세끼> <알장이> 등의 호통을 받아가면서 괴문들나는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이북 출신 목사와, 납치인사를 간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게끔 엄중히 격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 출신의 崔牧師라는 분이 죽음을 작오하고, 이곳 반공인사들과 함께하여 경비원을 바살시키려는 모의를 하여, 몇 개월이나 이 계획을 추진시키면서, 납치인

사 중 절은층의 인사를 포함하여 하였으나, 이것도 실패에 돌아 갔었다. 주모자인 韓教師는 모친 고문과 같은 학대를 받으면서, 경비원들의 심사를 받고 있었다.

모든 일이 실패에 돌아간 줄 알 다른 목사들과, 남치인사를 찾았던 명이, 작업장 갑자기 소리를 울리며, 손에 흰 삼과 고정으로 경비원들을 마구 구타했다. (1965년 10월) 수십여 명의 경비원들이 일시에 비상 호각을 불며, 충만을 겨우고 집합하였다.

수많은 광포와 실탄을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고립을 지르면서, 면 주먹으로 대항하는 반공부사들이 이곳 저곳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상시간에 근처에 있던 내무서 경비대들의 중대(中隊) 병력이 충무장하고 이곳에 도착하였다. <순들지 않으면 쏜다>는 소리를 지르며, 광포를 보아왔다. 끝까지 대항하던, 남치인사 수십여 명과, 북한출신 종교인들이 거의 충만에 맞아 쓰러졌다.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말없이 죽어 갔었다. 어떤 인사들은 <죽어도 ! 불은 이 티들아 !> 하며 고함을 치는가 하면, <반고객적, 김 일성의 주구들 ! 천추에 피를 씻지 못하리라 !> 하면서 쓰러졌다.

이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간은 산업하고도 냉정한 공기 속에서 시일은 흘러갔다. 괴뢰 고위당국에서 특별 조사단이 파견되는가 하면, 남아있는 남치인사들과 이북

출신 종교인들을 개별적으로 감금하고, 혹독한 고문과 주모자 색출에 광분하였다. 차라리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하기보다, 모두 죽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서인지, 개인마다 묵비인(默禪印)을 행사하고, 서로가 주모자라고 자리해 나서는 하였다.

남부학교로 피투성이가 된 누더기 옷에, 전신이 빠만 당상하게 남은 이들 인사들은, 사실상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 잘방 안에서도 결박당한 채, 딱딱한 속수수 밤영 어리로 그날 그날의 목숨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죽는 것이 행복하였던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1개월이 넘은 어느 날, 2대의 “트럭”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아직 초기 출이지만, 이곳 북녘 방 기슭에는 벌써 차더 찬 북풍이 불기 시작하였고,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악취가 코를 쳐드는 얇은 누비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온 전신이 동상(凍傷)에 걸려, 사람이 땅에 고동 중에는 이 이상 더 가혹한 것은 없을 만큼, 혹독하기 짜이 않았다.

드디어, 어느 날 새벽, 결박당한 남치인사 수십여 명과 종교인들이 경비원들의 충만에 맞아가면서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에 오른 뒤에, 큰 보자기로 머리 위를 덮어 놓더니, 어더운 가 떠나 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를은 괴뢰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아오지

만광대서, 수십여 리 떨어진 산중에서 집단 학살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충살을 보면 한 남아 있던 몇 명의 남치인사들과 대국인 사들은 이곳에서 이 강되어 소란 국경의 벽복강에서, 죽음의 중노동에 더욱 세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파는 바깥에 감금당하고 있는 남치인사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였다. 경양 군서에서 감금 당하고 있는 박조계 인사들, 혹은 꿈꾸던 출신 남치인사들에 대한 조치 문제도 예의 걸트되었던 것이다.

박조계 출신 인사들도 산발적으로 이곳 저곳의 단장이 보내기 시작하였고, 김사내에서 각설한 반공인사로 인정된 배에는 무자비한 비밀 학살도 자행했던 것이다.

본시 상당수었던 박조계 인사들과 기타 인사들이, 배, 배, 배,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인정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趙素熙, 金夏榮이 등이 남치인사 단체를 조직할 무렵, 광범위한 인사들을 망라하고자 적극 요청하였으나, 괴뢰들은 자기들이 결정한 인사들만으로 고정시키면서 남치인사 단체를 구성시킨 후로는, 趙素熙, 金夏榮, 元世勳이 등은 항상 침울에 잠겨, 모든 것을 자로자기하여 괴뢰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사설들이 나중에야 들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각처에서 각종 각계의 남치인사들에 대한 중노동과 감옥에의 구금생활은 절차 중 가하여 잘 뿐이었다.

성과에 대한 장단은, 지난 1月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 곤난하다고 “타임즈” 기사는 논평하였다.

한편, 공산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타당한 제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工場으로부터 이자를 지우하는 판계로 공산전영 전체 국가들은 공업 제품 가격을 재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여하튼 “항가리”的 이와 같은 관료기적 이자 부과제도는 “항가리”的 공산경제가 전통적 “마르크스” 주의 경제 이론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 <自由短信>



“뉴욕  
타임  
스”記事  
에 의하  
면, “항  
가리” 공  
산 정권은, “항가리”企業體들의 능  
력을 유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즉 “항가리”공산 정권은 “마  
르크스”主義의 이론을 떠나, 기  
업체의 고정 자본과 운영 자본에  
대하여, 利子를 받는 조치를 취하  
기 시작하였다.

이 “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항  
가리 工場들은, 1964년부터 생산  
수당 평가액의 5% “피센트”를 利子

로 지불하게 하고 있다 한다.  
이의 과세 대상은 공장 건물·생  
산 시설·도구·철료·제품 등으  
로 되어 있다.

3年前에, “유고” 공산 정권도  
이와 같은 方法을 일부 채택한 바  
있으나, 소련 위성국으로 이 方法

### “항가리의 經濟”

을 전국적으로 채택한 것은 “항가  
리”가 처음이다. “항가리”는 공산  
주의 경제에 공통된 제단인 물경제  
한 方式을 시정할 목적으로, 이자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 정권하에서 이 제도의 운영

# 돌아온 건가?

=百萬人署名運動을 中心으로=

申範植

동족상간(同族相殘)의 피비린내 나는 6. 25동  
안이, 김일성(金日成)도당에 의하여 도발(挑發)  
된지 벌써 열네들이 지났다.

인간의 배경한 망각 작용(忘却作用)은, 지난  
날의 그 처절(悲絕)했던 비극조차도 이미 까마  
득한 옛 일인 양, 우리를 뇌리에서 사라지게 하고  
있거니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가  
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뜻하지 아니한 괴뢰군의 남침에 의하여, 우리  
가 입은 상처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지  
만,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피해만 하더라도 백  
만을 헤아린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야 원통하  
고 한탄한들 무엇하랴마는 애끓는 가족들의 흐느  
낌과 울부짖음 속에, 사신(死線)을 밟으며 북으  
로 끌려간 민간인의 수효가 7천여명이라고 하니,  
그분들은 지금 어느 땅 어디에서, 어떤 곤욕(困  
辱)과 고역(苦役)을 겪으면서, 내 가족 내 고장  
과 고역(苦役)을 겪으면서, 내 가족 내 고장

<百萬人署名運動을 하고 있는 光景>



- 30 -

을 그리고 있을 것인지, 그 나마 생사조차 알 길  
없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통증한 일인가.

그이들도 그이들이지만, 이곳의 가족들도 천  
한의 북녘 하늘을 차다보며, 오늘도 내 부모, 내  
남편, 내 형제,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애타는 가슴을 얹누르고 있는 것이다.

동래에도 잊지 못하는 그리운 우리 부모형제  
의 송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민족 언론의 선  
구 <조선일보사>가 대한 적십자사와 협찬 아  
래 <남북인사 송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을 벌이고 있음을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와 같은 순수하고 고귀한 운동이 온 세계의  
양심과 인도주의에 호소하는 바 되어, 바람직한  
성과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  
지 남북인사 송환을 위한 우리족의 조선 정위를  
살펴보고, 이번 서명운동이 갖는 의의와 앞으로  
의 전망을 내다보기로 한다.

남북인사의 송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동란 이듬해 판문점에서 열  
린 군사정진위원회에서 부  
터 시작되었고, 지금부터  
10년 전인 1954년 5월, “제  
네바”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에서, 당시의 외무부장관 밴  
영태(卞榮泰)씨에 의해 <남  
북인사 즉시 송환>이 강  
력히 요구된 바 있었던 것  
이다.

그 후, 이 운동은 주로 대  
한 적십자사를 통해 꾸준히  
전개되었던 것이지만, 세월  
이 흐름에 따라, 그것마저  
이제는 맥이 끊긴 상태에 있  
는 것이 사실이다.

1955년 5월에 적십자 국제  
위원회(ICRC) 대표 “미셸”  
씨 일행이 우리 나라에 온

것을 계기로 하여,  
제를 본격적으로 5  
정부 당국의 협조  
사람들의 가족들로  
그쳤다니, 그 수  
150명이었으므로,  
십자사에 전달, 남  
고, 그 첫 단계로  
인해 주기를 당부

그러나, 북한 괴  
지 않았으므로, 19  
개최된 국제적십자  
자 대표들은 <한  
민국>을 조속한  
자제와 개최(再會)  
안을 제출하여 통

그러자, 북한 괴  
를 통보해 올으로  
한 날 체면 유지나  
이다.

우리 정부는 당  
을 발표하였고, 한  
처 국제적십자사를  
독촉을 거듭했으나  
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적십자  
있어서의 민간인  
근거를 두는 것이  
십자 국제회의 결  
정적인 중개 기관(I  
Government)과 더불어  
을 최대한 측진시  
보(情報)를 탐색(探  
품의 발송을 용이  
에 근거하여, 실제  
송환 조선에 당하고

이번의 100만인  
와 인도주의적 일  
공산 예도들의 비  
력을 고착적으로  
되어야 할 최기적

미구나, 금년 가  
페어린 통로에 의  
호 국가들의 지지  
등을 세계 여론의  
면(局面)으로 개척  
라 아니할 수 없  
줄에서도 잊지

것을 계기로 하여,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하였는바, 우선 정부 당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 강제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들로부터 통牒를 접수하였다.

그랬더니, 그 수가 7034명(남자 6884명 여자 150명)이었으므로, 이 명단을 정리하여 국제적십자사에 전달, 남북인사의 귀향 알선을 요청하고, 그 첫 단계로서 그분들의 안부와 소재를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 괴뢰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여 주지 않았으므로, 1957년 7월 10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적십자사 제19차 총회에서 우리 적십자 대표들은 <한국 동란 중의 실향 사민(失鄉私民)>을 조속한 시일내에 그들의 부모 형제 및 자제와 재회(再會)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북한 괴뢰집단은 고작 337명의 소재를 통보해 올 것으로 빛날치는 국제 여론 앞에 한낱 체면 유지나 하려는 속셈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당장 그분들을 송환하라고 생명을 발표하였고, 한편 우리 적십자사는 수차례 걸쳐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괴뢰 적십자사에 독촉을 거듭했으나 번번이 묵묵 부답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적십자사의 활동은 <전시(戰時)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조약>에 근거를 두는 것이로되, 특히 1953년 제18차 적십자 국제회의 결의 제20호의 <적십자사는 중립적인 중개기관(仲介機關)으로서, 자국 정부(自國政府)와 더불어 이산(離散)된 가족들의 석방을 최대한 촉진시키고, 그들의 운명에 관한 정보(情報)를 탐색(探索)하고, 그들에게 대한 구호품의 발송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한 대에 근거하여, 실향사민(失鄉私民)의 인도주의적 송환교섭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100만인 서명운동도 이와 같은 인류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공산 역도들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규탄과 압력을 고착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획기적 거사라고 하겠다.

미구나, 금년 가을에 있을 "유·엔"총회에다 이 꽤어린 통로에의 호소를 제기하여, 세계 자유 애호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이 운동을 세계 여론의 강력한 빛발침에서 새로운 국면(局面)으로 개척하려는 고무적(鼓舞的)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족, 친지, 동

포를 우리 것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성(至誠)이 아로새겨졌을 때, 세계의 양심이 우리 편에 설 것 이요, 엄숙하고 중고한 이 평화로운 시위는 마침내 남영이 같은 그늘일지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기적도 생겨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절코 부질없는 광상(空想)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북 농산 도매가 수많은 우리족 인사를 강제로 끌어간 이면은 여의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그 인사들을 어떤 흥정의 인질(人質)로 삼자는 것, 둘째로는 다수의 지도층 인사를 뽑아감으로써 남한의 인적 빈곤을 초래해 하여 지도력을 약화시키자는 것, 세째로는 그들을 소위 세뇌(洗腦)하여 남한 적화(赤化)의 앞잡이로 이용하는 것 등의 흥계(凶計)가 숨어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한반도(韓半島)의 공산화를 이룩해서, 세계 공산 혁명에 이바지하겠다는 망상(妄想)에 철없이 날뛰는 북한 괴뢰도당이, 소련을 등지고 중공에 돌아붙은 것을 고려해 넣을 때, 소련 "풀백"의 일종의 반감적 호응까지도 불려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리라고 여기는 바이며, 한편 중공과 인도의 국경 분쟁 이래, 줄곧 계속되고 있는 중·소련쟁은, 소련과 중공이 서로 다루며 국제적 고립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움직임마저 엿볼 수 있으므로, 중공측의 지령(指令) 내지 충용(忠貞)에 의하여 북괴측이 파격적 선심공세의 일단을 취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기대 가능성은 얼마 전에 소련이 미국, 정찰기(U-2기) 조종사를 송환한 것이라든지, 중공이 그들에 역류 당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 전쟁시의 포로로서 송환을 거부했다가 다시 번의(歸意)한 미국 병사를 송환해 준 예를 보더라도 결코 엇된 꿈으로 들려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이와 같은 생각은, 중공이 그의 국제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비추어서, 북괴로 하여금 그 어떤 교란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제기해온 미묘한 기운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아주 허황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있으리라.

이심 전심(以心傳心)으로 번져가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부디 신(神)의 가호(加護)를 입어, 우리 부모 형제 자매의 눈물겨운 재회(再會)가 하루 속히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약속된 지연이 다 되었으므로 이만 끝을 놓는다.

<筆者, 共和黨宣傳部長>



내가 맛은 8·15

- 海外 타이에 시기 -

## 光復軍을 中 心 으로



張 虎 岗

### 《感激의 그날》

민족 해방의 종이 울리던 그 감격의 날인 1945년 8월 15일, 나는 동지들과 같이, 한국 광복군 제3지대 본부가 있었던, 중국 안휘성 무양현 구리구 (安徽省阜陽縣九里溝)라는 고장에서 새로운 역사의 날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곳은 중앙군 제10전구(第十戰區) 관할에 있는 천방 지역으로써 일본군과의 거리는 150리, 하남성 개봉시 (河朔省開封市) 부근에서 하류 (河濱)가 동남쪽으로 흐르는, 소위 신황하 (新黃河)를 경계선으로, 북쪽은 일본군과 화평군이 배치되어 있고, 남쪽은 중앙군의 전초 부대가 배치되어, 당시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계 대세에 있는 전투 지대이며, 차마 (車馬)는 통과 할 수 없는 수호 (水壘)만이 사방에 있는 방어 요새이다. 또한 이 곳은 개봉—서주, 서주—남경, 남경—한국, 한국—개봉을 연하는 철도선안에 적에게 도위되어 있는 고립지대여서 몇 번인가 적의 공격을 받은 바 있는 위험지구이기도 했다.

그 전날 8월 14일, 우리는 일본군이 “프로답” 선언을 수락했다는 보도를 들었고, 다음 날, 일본측의

중대 방송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는 알고 있었으나, 막상 그 날 일본 천황의 목비인 소리로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방송을 직접 들었을 때의 감격과 충분은 나의 생애를 통하여 영영 잊을 수 없다.

이 보도가 재빨리 동지들에게 알려지자, 늙은이·젊은이, 남자·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서로 열싸안고 거창한 울음을바다를 이루고 말았지만, 너무나 생이고 쌓였던 기다림이 드디어 오고야만 백한 감격과 민족정기의 승리감이 절친 데다가, 강적 일본이 이처럼 빨리 패망될 줄은 이처 예기 못했던 놀라움이 뒤섞여, 동지들의 울음을 춤처럼 그 기 춤을 물었다.

### 《老革命家의 激動》

이 광경을 목격한 바다보고 있던 노혁명가인 부지대장 이 복린 장군 (李復臨將軍)은 동지 간친을 연명장에 짐작시켰다. 당시 지대장 김학규 장군 (金學圭將軍)은 중경 임시정부와 광복군 충사령부에 출장 중이었기에 부지대장이 대리해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때였다.

작달막한 키에도 군복이 풀에 잘 힌 미국 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이미 60을 넘은 천진한고의 굳은 지

조와 무지력을 가진 혁명가였다. 삼시간에 수백 명의 동지가 연명장에 집합되자, 대국기를 우러러 국가를 통창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은 후, 그는 칭착한 태도와 어조로 다음과 같은 흐끼의 춘시를 다졌다.

(지금 우리 동지들이 지난 흥분에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비록 해적이 무조건 항복을 한다고 해도, 중국·만주·한국에 주둔하는 해군의 환전 무장해제가 끝나기 전에는 아직 안심할 수 없으며, 현재 조국 광복을 위해 이역 땅에서 공작과 훈련과 전투를 배우다가, 우리의 힘으로 직접 조국을 해방하지 못함이 음감이라는 점과 장차 우리는 조국 세전의 과업이 더 중요하므로, 동지들의 이성에 호소하여 일시적인 흥분에서 깨어나 혁명가가 되는 영철한 자세로 돌아가라)는 풀자였다.

이러한 심금을 울리는 흥시에 이어, 다음과 같이 지태가 (實際狀)를 유령하게 하늘이 터지라고 물었다.

조국의 영예를 어깨에 메고 대국기 밑에서 풍차진 우리

### 《새삼 쳐다본 太極旗》

이날 따라 이역 만리, 남의 상하늘 높이 휘날리는 대국기는 새삼스

쉽게 바라보면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곳에 대국기  
은 1940년 광복군  
에서 창설된 다른  
군이 전방지구회  
(招募委員會)으로  
되었고, 그 후 많은  
밀에서 피눈물  
고, 저 것 말 밑에  
후, 적지구 공작이  
밀 밑에서 제 3기  
여, 저 것 말 밑에  
많은 농지가 쓸어  
밀에서 오늘의 강  
자못 감개무량한

### 《緊急 告白》

이러한 행사가 모회의에서는 일본·자치구 지하 공작·화평군의 등대회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시하는 한편, 제10전연이 있던 일왕 (立場)에 훈련 중에 있는 전부 대장에게 계약과 훈련에 마련되어 있는 장차 중앙군의 수속·일본군 무장해제 기명·재산 보호에 대응·이하를 문의하여 조치하였고, 따라서 부의 지시를 기다려,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 《舊胞의 生命》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교포들의 생명·관한 문제였다.

일본군 점령하의 교포대한 거의 70%가 라는 불명예스러운 적 있어서, 교포에 대한 중요성을 평소부터 대체 악상 일본이 때문이라, 최악의 궁간을 이어가며 누적되었던 중요성 경우, 교포들의 생명·용기 그치없는 상태에 이의 대체 장구가 전급 물론, 이 문제는 일본군 충사령부에서도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럽게 바라보면서, 영광천 보람에 또 다시 눈물이 넘쳐흘렀다.

이곳에 태극기가 나보끼게 된 것은 1940년 광복군 충사령부가 중경에서 창설된 다음 데, 김 학규 장군이 전방지구의 광복군·총모의원(招募委員)으로 임명되어 온 서부 떠있고, 그 후 많은 동지들이 저 것 말 밑에서 미술을 훈련을 받았고, 저 것 말 밑에서 축음을 맹서한 후, 적지구 공작에 나섰고, 저 것 말 밑에서 제 3지대가 창설되었으며, 저 것 말 밑에서 적과 싸우다가 많은 공적이 이루어졌으며, 저 것 말 밑에서 오늘의 강적을 갖게 된 데 차운 갈개무랑한 뿐이었다.

### 《緊急 參謀會議》

이러한 행사가 있은 후, 긴급 참모회의에서는 일본군 점령하에 있는 각지구 지하 공작 대장에게 일본군과 화병군의 동대와 교포들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10전구 사령부가 있었던 일왕(立煌)에서 미군 지도 아래 훈련 중에 있는 광복군 특수 훈련부 대장에게 계속 교육 훈련의 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10전구 사령부에 마련되어 있는 연락단장에게, 장차 중앙군의 수복지구 진주계획과 일본군 무장해제 계획, 고고의 생명·재산 보호에 대한 계획 등의 내용에 하루를 문의하여 수시 보고도록 조치하였고, 따라서 광복군 충사령부의 지시를 기다려, 다음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 《僑胞의 生命·財產保護》

우리가 제일 걱정하게 된 문제로서는 교포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관한 문제였다.

일본군 점령하의 교포들의 생활 토대만 거의 70%가 마약 밀매업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교포에 대한 중국 민중의 증오심은 평소부터 대단하였고, 이제 마상 일본이 패망하게 될 때마다, 치안의 공간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증오심이 폭발되는 경우, 교포들의 생명·재산은 위태롭기 그지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의 대책 강구가 긴급하였다.

물론, 이 문제는 임시정부와 광복군 충사령부에서도 중국 정부와 협조가 있을 것으로 알지만, 무

엇보다 일본군 점령 지역에, 중앙군과 광복군이 속히 진주하여, 직접 치안과 생명·재산 보호에 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중앙군의 수복 지역 진주 계획에 구안하여, 광복군 특파단의 작전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여 한자 중앙군과의 협조를 철밀히 하는 한편, 충사령부에 계획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收復地區 進駐計劃》

이 계획 내용은 중앙군의 수복지구 진주시, 각지구마다 편성된 광복군 특파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1. 일본군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의 생명·재산 보호
2. 임시 정부 및 광복군에 관한 계획 수립과 독립 정신 양양
3. 일본군내 한적(韓籍)장병 및 군속의 광복군 편입
4. 아편 밀매업자 예술(賣淫)업자 및 위안부에 대한 선도와 단속
5. 교포의 단결 촉진을 위한 교포회 조직과 애국가 및 국기의 모금
6. 중국 민중과의 우호 친선 도모
7. 연안계 독립 운동파의 침투 및 파괴 행동 방지
8. 일본군의 무기를 최대 입수하여, 광복군으로 편입된 장병의 무장화
9. 해방 동지 수감자의 석방 인수
10. 교포의 복지 향상과 위국 축진

### 《特派團의 編成要領》

이에 따라, 광복군 특파단의 편성 요령은 각 지구마다 세입자 이하 간부급 12명으로 하고, 각 지구의 치하 공작대와 합류하여, 장차 한적 사병과 청년들을 조성한 후, 확장된 부대를 편성한다는 목표 아래 그 세입자가 선발되었던 것이다.

개봉지구 박 영준(朴英俊) 등지 제남지구 장 호강(張虎崗) 등지 서주지구 박 영근(邊英根) 등지 북경지구 김 광현(金光顯) 등지 천진지구 신 풍관(申興觀) 등지

남경지구 윤 장호(尹昌浩) 등지 상태지구 서 마(徐 滅) 등지 항부지구 김 국주(金國柱) 등지 타라서, 차대 본부는 차대장 겸 학규 장군 지휘하에, 무기대장 이 죽진 장군, 비서실장 장 초민(張朝民) 등지, 오 광설(吳光澤) 등지, 엄 도례(嚴道禮) 등지, 박 순보(白淳甫) 등지 등 간부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장비 본부는 서주—남경—상대로 차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명예로 차차적으로 전차로 세력을 세워,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모든 준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달세가 지나고 혼란이 지나도 현지 중앙군의 수복지구 진주 계획은 좁혀져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상부로부터도 하증의 지시가 있어 초조한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가지 다행한 일은, 장 개식 총통이 치나방연군 충사령부에게 일본군 점령 하에 있는 중국 민중과 한국 교포의 생명 재산에 관한 책임을 중앙군 진주시까지 계속 담당해야 한다는 명령이 하달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 《되찾은 士氣로써》

한편, 부루른 회양에 가득한 우리에게 암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우리나라 해방은 되었어도, 어느 기간, 강대국의 선탁통치 과정을 거쳐야 독립이 될 것이라는 것과 광복군이 귀국할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개인 자격으로 가게 된다는 등의 통설에, 한때 동지들은 앞날에 담벼운 광란의 암울한 사태를 염려하는 나머지, 오히려 해방된 기쁨은 사라지고 사기는 국도로 멀어진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런 때, 제10전구 사령부로부터, 9월 1일을 기하여 중앙군은 수복지구로 진주하게 되었으나, 광복군 특파단도 행장을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기는 다시 회복되었고, 서로 전방을 지원하는 형세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고향에 보내는 편지의 부탁, 잠시 이별을 서려워하는 축의 소동 등 교차된 회비국 속에서, 옳고 웃던 그 모습들의 생생한 추억이 아직 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著者 陸本持戰監>